



VALUE INVEST KOREA

★ 밸류타임즈 ★

- # 와이랩 : 와이랩, 전설의 로봇 신작 '캉타우' 네이버 웹툰 연재
- # 빅팻게임즈 : 팡스카이, 오채지 무협소설 RPG '십만대적검' 사전등록 실시
- # 아스타 : 아스타, 국제성모병원에 미생물 동정시스템 납품
- # 인성메디컬 : 송인금 인성메디컬회장 "해외 의료기기 국산화 앞장설 것"

★ 벤처스토리 ★

美 우버 80조 -中 디디추싱 62조 가치...한국은 유니콘 키울생각 않고 부러워만



전설의 로봇 신작 '강타우' 네이버 웹툰 연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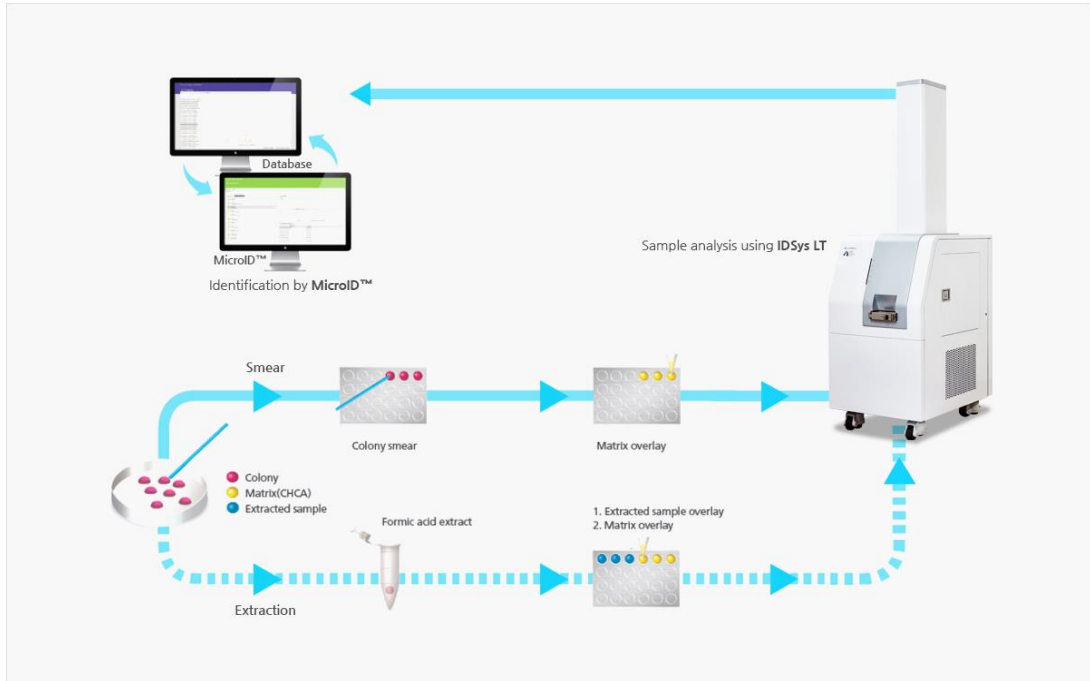
- 와이랩이 이정문 화백의 '철인 강타우'를 리메이크한 '강타우'가 매주 목요일 네이버웹툰에서 연재를 시작
- '철인 강타우'는 '심술통'으로 유명한 이정문 화백이 1976년 발표한 로봇 만화(지구를 둘러싼 전쟁 중 빙하기를 맞아 긴 잠에 빠진 우주세력 오크타와 스펠타, 먼저 깨어난 스펠타 군단이 지구를 정복하기 위해 세력을 키우고 평범한 고등학생 강현이 잠들어있던 오크타 종족 카우카와 로봇 강타우를 깨우며 그들을 저지하려는 내용)
- '강타우'는 전례 없는 디자인과 스토리텔링으로 한국형 로봇을 대표하는 오리지널 콘텐츠로 알려져있음.
- 글로벌 프로듀싱 시스템을 도입해 전문적으로 리메이크를 시작해 원작에 대한 분석, 새로운 스토리, 작화와 컬러 등 약 3년에 걸친 투자를 통해 '강타우'는 새로운 블록버스터 웹툰으로 재탄생됐음.
- 대한민국에서 손꼽는 만화가(양경일 작가)의 섬세하면서도 힘 있는 그림체가 세세한 로봇 표현과 배경 묘사에 잘 어울린다는 평임.
- 2019년에는 팩토리얼 게임즈와 와이랩이 공동제작하고 라인게임즈가 퍼블리싱하는 모바일 게임 '슈퍼스트링'이 출시될 예정이며 게임 '슈퍼스트링'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로봇 강타우를 조종하는 '카우카'로 '스펠타'라는 행성에서 온 외계인인데 카우카는 중성적인 분위기가 인상적이고 강타우라는 초대형 무기가 있는 만큼 다른 캐릭터들과 어떻게 연결될지 관심이 집중됨.



팡스카이, 오채지 무협소설 RPG '십만대적검' 출시 전 사전등록 실시

- 서비스를 준비중인 모바일 무협 MMORPG '십만대적검'의 8월 정식 출시를 앞두고 사전등록 이벤트를 실시
- 사전등록에 참여한 유저들에게는 귀속 영옥 1,000개와 은화 10만개, 펫교환권 5개, 활력단 10개, 녹수정 30개, 백수정 50개 등 10만원 상당의 게임에서 사용 가능한 풍성한 아이템을 지급
- '십만대적검'은 오채지 작가의 대작 무협소설로, 2013년 무협소설의 판도를 뒤흔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. 당시 많은 유저들로부터 작품성을 인정받아 동명의 만화책으로도 출간되어 1부 26권 까지 출간됐음.
- 게임 '십만대적검'은 15년 이상의 핵심 개발진이 개발한 3D 무협 MMORPG로, 소설 속 무림의 세계를 아름다운 FULL 3D 그래픽으로 재탄생시켰으며, 원작 특유의 스타일 넘치는 서사와 파괴력 있는 연출이 특징임.
- 콤보와 에어본, 경공 등 다양한 스킬 조합으로 호쾌한 액션이 가능하고, 길드를 중심으로 한 유저간 협력플레이와 수십여 종의 코스튬과 차별화된 커스터마이징 시스템, 결투장과 공성전 등 최강자를 가리는 PVP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음.





아스타, 국제성모병원에 미생물 동정시스템 납품

- 16일 미생물 동정용 말디토프(MALDI-TOF) 시스템 장비인 마이크로아이디시스(MicroIDSys)를 인천광역시 소재 국제성모병원에 납품했다고 밝힘(국제성모병원은 500개 이상의 병상과 25개의 임상진료과를 갖춘 천주교 인천교구 산하의 종합병원이자,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의 부속 병원임)
- 아스타는 중앙보훈병원 납품에 이어 이번 국제성모병원의 진단기기 납품 실적으로 거두면서 미생물진단기기 시장의 후발주자 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형병원으로의 판로를 확장해가고 있는 모습임.
- 국제성모병원 납품과 더불어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일부 대형병원과도 납품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입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우수 대형병원과의 계약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, 하반기 중 순차적으로 실적이 가시화될 것임.
- 국내 대형병원으로부터의 기기 성능에 대한 인지도를 바탕으로 올해 말부터는 국내 진단기기 시장에 좀더 공격적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계획임.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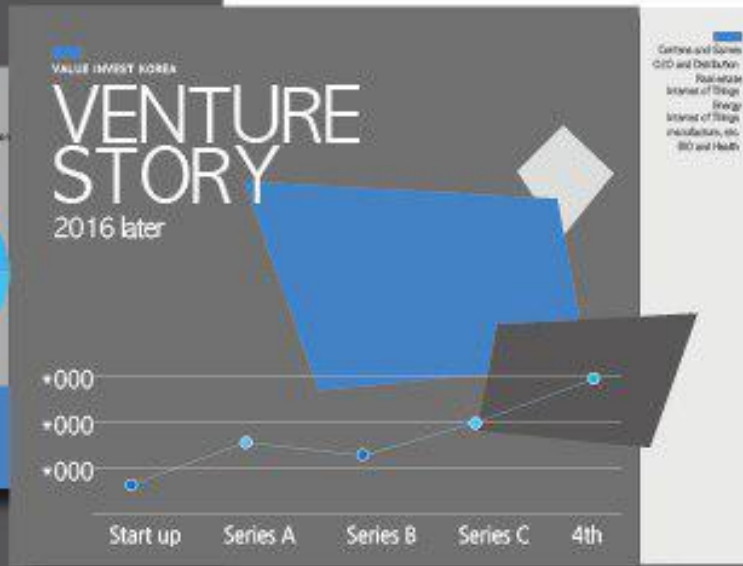
송인금 인성메디컬회장 “해외 의료기기 국산화 앞장설 것”

- 1984년 회사 창립 이래 34년 동안 꾸준히 의료기기 소모품의 발전을 위해 정진하고 있으며 전문의료기기 국산화 및 고객 만족을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아낌없는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기존 제품 업그레이드와 신제품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.
- 내년 코스닥 상장을 통한 한단계 성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임.
- 혈관용 카테터, 약물 주입기등 해외의 우수 의료기기를 국내에 도입한 데 이어 수액시트, 마취액 주입용 카테터등을 국산화하는데 앞장섰으며 2011년 설립한 대구연구소를 바탕으로 제품의 업그레이드에 꾸준히 힘쓰고 있음.



VALUE INVEST KOREA VENTURE STORY

제56회 2018.08.22



● 美 우버 80조 - 中 디디추싱 62조 가치...
한국은 유니콘 키울생각 않고 부러워만



美 우버 80조 -中 디디추싱 62조 가치...

한국은 유니콘 키울생각 않고 부러워만

■ 규제 개혁(Regulatory reform)

법률 개혁(Law reform)의 하나로서,
보통 기업 활동과 관련된 경제 규제에
대한 개혁을 말한다.

지자체, 이익집단간 갈등조정 능력 한계 정치권은 표만 의식...관료는 안전주행

- 공무원 등 관료집단의 안전 지향주의도 스타트업 업계에서 공통으로 지적하는 사안이며 택시업계를 비롯한 이익집단에서 스타트업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면 일단 규제하고 본다는 것임.
→ 기존의 법 체계로 판단하기 어려운 '그레이존' 이 있다고 할 때, 공무원들이 판단을 유보하지 못하고 민원을 제기한 쪽의 입장에서 규제를 일단 하고 보는 방향을 잡으며 공무원 입장에서는 악성 민원이 쌓이면 인사고과에서 안 좋은 평가를 받는 데다, 특정 스타트업의 사업을 허용해 준다고 하면 곳곳에서 '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다'는 비판까지 받는 구조임.
- 스타트업들은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법적 검토를 받지만 변호사, 법무법인 마다 판단이 다른 경우가 있으며 행정당국의 판단과 법원의 판단도 다를 수 있어서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상황에서 마주하기엔 너무 큰 리스크임.
- 스타트업이 발달한 미국·영국 등의 경우 명확한 법 조문이 없는 영역에 대해 일단 사업을 허가하고 논란이 생길 경우 재판을 통해 생긴 판례를 판단 근거로 삼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영미법 체계임.
→ 반면에 한국의 경우 독일·일본과 같은 대륙법 체계이며 판례 보다는 법률 조문이 우선하고 국회에서 근거 법안을 마련해야 사업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지 명확하게 판단 할 수 있음.
- 법조계 관계자는 "스타트업이 부정확한 법 체계로 혼란을 겪을 때 국회가 입법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해 줘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"고 지적